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요구... 한미약품 '독재경영' 유감

3자 연합 vs 형제 갈등 심화

사이언스, 박재현·신동국 해임안건 “명성 사그라들고 미래는 불투명 더 이상 현 경영상태 방관 못해”

3자 연합, 정관 변경의 건 등 목표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과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경영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9월 30일 계열사인 한미약품에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공문에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임시 주총을 통해 결정할 안건으로 박재현 대표이사과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는 안건,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과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를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제안했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측은 “지주사로서 한미약품을 포함한 한미약품그룹 전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신약과 개량 신약 연구개발을 모두 선도했던 한미약품그룹의 명성이 예전 같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시장의 평가까지 더해지고 있어 더 이상 현 경영 상태를 방관할 수만은 없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사이언스 박재현 대표가 촉발한 내부혼란에 대해 이사회 해임은 물론 이로 인해 빚어진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재현 대표가 ‘독립 경영’과 ‘전문 경영’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취임 후 행적을 보면 박 대표는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특정 대주주에만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의 설명이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신규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그동안 묵묵히 한미약품그룹에서 경험을 쌓고 각 부문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온 명망 있는 분들을 신규 경영진으로 모셔와서 한미약품그룹의 영광을 되찾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미약품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은 일정 자격을 갖춘 누구라도 요구할 수 있는 주주 권리”라며 “주주들께서 합당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임시 주총 관련 논의를 진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미약품은 “최근 열렸던 한미사이언스 임시 이사회에서도 한미약품

임시 주총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이번 제안이 한미사이언스 법인이 한 것인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등 특정 대주주의 독단적 결정인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지주사의 특정 대주주 경영자가 그룹사의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독재 경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공개적으로 임시 주총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자료에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과 신동국 이사에 대해서 한미사이언스가 모욕적이고 비상식적인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9월 27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오는 11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이번 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을 문제로 신동국·송영숙·임주현 3자 연합 측과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11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는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3자 연합 측과 형제 측의 표대결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3자 연합 측은 ▲정관 변경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의 건 등 이사 2인 추가 선임의 건 등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6대 5 구도로 재편성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상정된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은 한미사이언스 측이 제안한 것인데,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에서 100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내용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 상법상 차기 이후 배당가능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재원으로 추가적인 배당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소득세법은 ‘자본준비금 감액해 받는 배당은 과세 대상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액 배당을 지급받는 개인주주는 배당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감액 배당은 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한국맥도날드, 카타르 ‘카말 알 마나’ 품에

400여개 매장·한국마켓 운영

한국맥도날드가 카말 알 마나(Kamal Al Mana, 이하 알 마나)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알 마나는 한국맥도날드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80%에 이르는 직영 매장을 포함한 총 400여개의 매장 및 한국 마켓의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알 마나는 식음료부터 소매, 부동산 및 명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눈에 띄는 경영 성과를 기록해 왔다. 특히 30년 전 카타르 최초의 맥도날드 매장을 세운 이래 튀르키예 맥도날드의 전략적 파트너로 활약하



한국맥도날드가 ‘카말 알 마나’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한국맥도날드 전략적 파트너 카말 알 마나(왼쪽부터), 김기원 대표이사, 글로벌 맥도날드 아시아 사업부 사장 스탠 헤이튼스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

는 등 맥도날드 시스템 안에서 성공적 커리어를 쌓아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마트, 그로서리 온·오프라인 사업 전담



온·오프라인 통합 조직개편 단행 그로서리 전문점 전환 등 성장도모

롯데 그로서리 사업의 완전한 통합이 이뤄진다. 롯데마트는 1일부로 이커머스사업부 내 e그로서리사업단과 조직 통합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로서리 사업의 경우 마트, 슈퍼, 창고형 할인점 등 오프라인 채널은 롯데마트사업부에서, 온라인 채널인 롯데마트몰은 이커머스사업부에서 담당해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온/오프라인 그

로터리사업 전체를 롯데마트가 전담한다. 이커머스에서 담당하던 오키아도의 협업 사업 역시 롯데마트가 추진한다.

롯데마트는 성장이 정체된 오프라인 유통 산업에서 ▲마트 슈퍼 사업부 통합 시너지 창출 ▲그로서리 전문점 전환 ▲신선 및 PB 등 그로서리 상품군 경쟁력 강화 ▲해외 사업 지속 확대 등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통합으로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채널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더 나아가 오키아도와 협업 중인 온라인 그로서리 신사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갖게 됐다.

롯데마트는 온/오프라인 사업부간 시너지를 창출해 온라인 식품 시장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구축하고자 이번 조직 통합을 결정했다.

신선 식품을 필두로 한 그로서리 상품은 신선도와 품질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상품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신뢰도가 높다.

이번 온/오프라인 그로서리 통합은 매입 규모 확대에 따른 상품 조달력 향상은 물론 온-오프라인 통합 데이터 베이스 활용을 통해 상품 운영과 마케팅 측면에서도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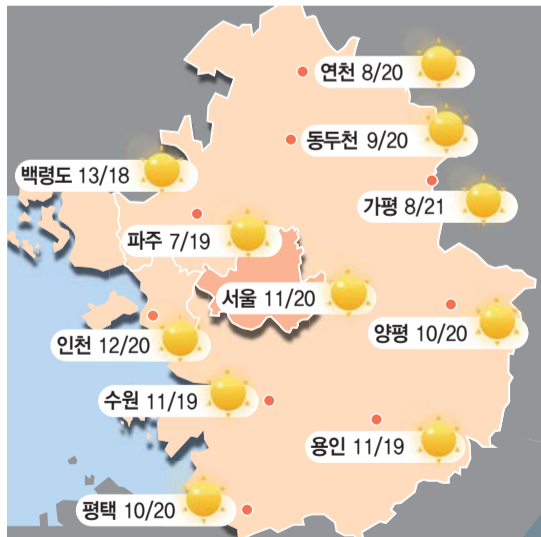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8 | 해질 / 18:14

10월 2일 (수)
음력 : 8월 30일

수도권 날씨
11~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형지엘리트 대표이사에 최준호 부회장 발탁

글로벌 경영능력 등 주요

형지엘리트는 지난달 30일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총괄 부회장(사진)을 형지엘리트의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형지엘리트에 따르면 최준호 부회장이 형지엘리트 신임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서 패션그룹형지의 2세 경영 체제가 더욱 확고해졌다. 그동안 형지엘리트 대표이사는 패션그룹형지 창업자이자 최 부회장의 부친인 최병오 회장이

맡아왔다.

최 부회장이 형지엘리트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은 글로벌 경영 능력이 주요했기 때문이라는 게 형지엘리트 측의 설명이다. 실제 최준호 부회장은 글로벌 형지를 목표로 지난 2021년 5월 가스텔바작 대표이사로 경영 전면에 처음 나섰으며, 같은 해 12월 패션그룹형지 사장직을 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있따라 동행하면서 외교 활동에 집중했다. 글로벌 공략 사업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월에는 23개 브랜드 전반을 총괄하는 패션그룹형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최 부회장이 그룹의 핵심 사업인 형지엘리트 학생복 사업을 해외 시장으로 확장한 것도 대표이사 선임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 실제 형지엘리트는 제23기 연결 기준 전체 매출액은 전기 대비 40% 증가한 1327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미국 “이란, 이스라엘 공격엔 심각한 결과”
▲“스톡텐베르그 10년 저물었다”... ‘뤼터 총장 시대’ 새 나토 과제는? /사진 뉴시스

▲북한 “핵, 주권적 권리...미국은 누가 집권하든 달라진 북 상대해야”
▲中 “설비 교체” 현상선...B2B 물류도 자동화 ‘속속’



▲英, 마지막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해 142년 역사 마감
▲카터 전 대통령 1일 100세 생일, 역대 미 대통령 중 최고령 /사진 뉴시스